

# 의약품 접근성 확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

### 박능후 복지부 장관 WHO 총회 참석



WHO 총회 기간 중 한국 보건복지부는 15개국과 공동으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약품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 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및 관련 부대행사에서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보건총회(WHA)는 매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며, 194개 회원국의 보건부 장관이 참석한다. 올해 총회는 '보편적 건강보장: 누구도 소외됨 없이(Universal Health Coverage: Leaving no one behind)' 주제로 열렸다.

보편적 건강보장(UHC)은 필수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17개 목표 중 '3. 건강과 웰빙'의 세부 실천목표에 해당된다.

총회 첫날인 5월 20일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등 15개국과 공동으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참여국은 한국, 이탈리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키르기스스탄, 그리스, 인도네시아, 멕시코, 몽골, 네덜란드, 포르투갈,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베트남 등이다.

행사는 '의약품 및 필수의료재료 접근성 강화: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시장 투명성 보장, 적정 가격과 품질 보장에 관한 다차원적 접근' 주제로 열렸다. 10여개국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관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 접근성 관련 실제 사례와 현재 국제적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각 나라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사례 공유와 해결책 제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의약품 접근성 방안을 모색했다.

박능후 장관은 부대행사 직후 이어진 WHO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을 비롯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각국이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길 당부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의약품 접근성 부대행사 등에 많은 국가들이 보여준 관심에 감사하다”면서 의약품 접근성 관련 부대행사의 주요 결과를 다시 한번 공유하며, 이에 대한 전 세계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다른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 추진을 위해 한국의 사례 공유 및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박능후 장관은 WHO 총회를 계기로 개최된 주제네바네달란드대표부 주최 의약품 접근성 회

의, 스웨덴·영국 주최 항생제 내성 장관급 회의에 참석해 해당 이슈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표명하고, 국가 간 우수정책 및 경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요국 보건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했다. 미국 알렉스 아자르(Alex M. Azar) 보건부 장관과는 항생제 내성 관련 파트너십 구축, 한국의 인체자원은행 관련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 타우피크 파우잔 알라비아(Tawfiq Fawzan AlRabiah) 보건부 장관에게는 한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알리면서 사우디 내에서의 제약·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WHO 총회는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각국 보건부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전 세계인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국제 보건사회에서 한국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9개 부처 차관급 인사를 5월 23일 단행했다. 보건복지부 차관에는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이 승진 임명됐다.

신임 김강립 차관(53세·사진)은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연세대에서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 의료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보건 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외교부 주제네바대표



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두루 역임했다. 보건의료정책실장임을 거쳐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보건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국립소록도병원 103주년 ... 행복을 위한 동행

### 소록도박물관 '특별전·기획전' 12월까지

국립소록도병원(병원장 박형철)이 개원 제103주년을 맞아 '한센인 행복만마당' 행사를 5월 13일부터 5일간 개최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한센인과 함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행복을 위한 동행' 주제로 마련했다.

소록도병원 개원 제103주년 및 제16회 한센인의 날 기념식, 한센가족의 화합을 다지는 '한센 사랑 축제'가 국립소록도병원과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형철 국립소록도병원 원장은 기념식에서 “혼자라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말처럼 행복을 위한 동행의 길을 한센인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한센인 권익과 복지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경희(성라자로마) 간호과장, 김현미(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함나운(강릉시보건소 지방간호사보)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소록도박물관에서는 '특별전·기획전'을 열어 한센인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예술 작품과 함께 소록도개 개통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는 12월까지 열린다.

최유주 기자 yjchoi@

## 포상 현대병원 한부회 간호부장 '산업포장' 수상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한부회 간호부장이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9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한부회 간호부장은 내·외부 고객 만족 향상, 일·학습 병행한 간호학사 취득 분위기 확산 및 지원, 직원 고충상담 처리,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 등을 적극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한부회 간호부장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환자를 돌보는 데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올해 4월부터 시작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포함해 입원간호서비스 혁신을 추구하는 불모밭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 골수기증 통해 사랑 나눈 울산대병원 윤수진 간호사

혈액암 소아환자에게 골수(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간호사 이야기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동을 주고 있다. 울산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윤수진 간호사가 그 주인공.

윤수진 간호사는 간호대학생 시절부터 골수 및 장기기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골수기증 부족으로 많은 혈액암 환자들이 제때 이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을 알고 기증을 결심했다. 대한적십자사에 골수기증 희망자로 등록했고, 2016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조직적합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이식 준비과정에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기증이 취소됐다.

그로부터 3년 후 올해 이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왔고, 이달 5월에 조혈모세포이식을 성



공적으로 마쳤다. 윤수진 간호사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눠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다”며 “많은 사람들의 기증을 통해 혈액암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 [간호역사뿌리찾기] '대한간호(속간1호)' 다시보기 ③-2

대한간호협회가 1953년 6월 26일 발간한 잡지 '대한간호(속간1호)'에 실린 글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원문(국·한문 혼용)을 서지학자가 한글화한 버전을 게재하며, 간호사 명칭은 당시 불렀던 그대로 간호원으로 삼습니다. \*아래의 글은 당시 대한간호협회 홍옥순 제2부회장이 '우리의 당연한 문제'라는 제목으로 쓴 글을 요약한 것이며, 2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 결혼한 여성의 직업활동에 대한 이해가 박약하니 강한 의욕과 포부로 가정과 직장을 유지하라

**[결혼문제]** 간호사업이란 여자에게만 국한된 과업은 아니지만 여성으로서의 성품과 존재로서 성공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자연 여성의 직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간호는 몸과 정신의 노동을 요구하는 업무이니 전심전력 생활화한 책임완수를 강하게 요구한다.

간호학교를 졸업하면 벌써 혼기에 다다른 생활 간소를 위한 식료품이나 생활의 과학화가 아직도 먼 우리사회에 있어 직업여성을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직장으로서 나가게 하거나 직장의 수명을 길게 하는 아무 협력도 이해도 너무나 박약하다. 고로 가정을 결한 직업여성의 활동은 몸시도 제한되어 능력과 시간을 구속받고 따라서 여성사업 발전에 암영과 위협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업은 그 자체가 기본생활의 기초인 만큼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나 얘기를 기르는 것, 노인을 받드는 것 등 간호학교에서 배우고 경험을 얻어 익숙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능률적 처리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욕과 포부가 있다면 가정과 직장을 가지기 오히려 용이한 점도 있다.

가정의 주부가 되기 전 최선의 업적을 쌓을 것은 물론 결혼 후에도 남편에 따르는 직장 시간적 근무 등 가정과 사회를 겸한 활동무대에서 남을 위한 만족한 삶을 누리기 바라며 사회시설도 같이 이와 같은 경우에 직업여성을 맞이할 준비와 기회를 만들기 바란다.

### 우리 스스로 간호사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을 수 있다

**[대우문제]** “우리는 언제까지 부침인(환자의 하인) 모양으로 밭을 씻기거나 밭을 먹이거나 더러운 것을 만져야만 합니까?”의 질문은 아마도 오늘 우리 간호원 대부분의 현실을 잘도 표현한다고 느꼈다. 답하기를 “나의 밭을 씻기고 나에게 밭을 먹여주며 나를 깨끗이 해주는 사람을 업신여기겠는가?”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하였다.

과거의 간호원은 환자에 속하지 않고 의료를 도움에만 주로 책임을 삼았으니 의사의 조력자 만으로의 간호원은 그 존재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오히려 간호원은 명령적 입장에서 부침임을 무시했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돌도 없는 부침인은 동료 간호원으로부터 멸시를 받지 언제 환자가 언제 사회가 부침임을 업신여기든가? 나 스스로가 나를 자랑하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대우도 하고 또 대우를 받게 된다.

물질적 대우문제는 또한 중요한 것으로 흔히 다른 직장 다른 직업으로 옮겨갈은 힘겨 전문적 교육과 경험을 쌓은 사람에 대한 기대에 큰 모순이 있음을 지적한다. 간호원은 피고용인의 태도로 일하고 있나? 내 일과 같이 하나? 협력자로서인가? 팀웍(Teamwork)의 한사람으로 자신이 있는가?

#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NAVER 간호교육연수원 검색

##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http://www.ganhohak.co.kr)